

# 복지국가 스웨덴 생활기

## 스웨덴의 서울, 물(水)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잘 발달한 지방자치제도

“한국 대규모 파업 :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수도 서울에서 시위했다”. 스웨덴의 서울 스톡홀름(Stockholm)의 지하철회사가 매일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인 「메트로(Metro)」에 지난 5월 28일에 난 기사이다. 나의 스톡홀름의 하루일과는 버스를 타고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Arbetslivsinstitutet)로 가는 길에 거리 곳곳마다 마련되어 있는 「메트로」를 집어들고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스웨덴은 유명한 다국적기업들, 예를 들면 볼보(Volvo), 아스트라(Astra), 에스코에프(SKF), 스카니아(Scania), 아베베(ABB) 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요한 기간산업은 공공부문에 속하기 때문에 지하철회사도 스톡홀름 주(län) 소유이다. 「메트로」가 무료로 발간될 수 있는 것도 지하철 회사가 주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스웨덴은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편이다. 대중 교통수단, 전화통신, 병원, 학교, 우체국 등은 모두 공공부문인데, 대부분 스톡홀름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지자체 구조는 중앙정부, 주정부(län), 시정부(kommun)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중앙정부,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와 외관상으로는 유사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대부분의 생활이 시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영향력



스웨덴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년에 유급휴가는 5주(36일)이다. 물론 토요일도 일요일처럼 휴일이다. 사진은 스웨덴 식품노동자들의 작업 모습.

을 피부로 느끼기 힘들다. 병원이나 학교도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kommun)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학교로 다니는 것은 불편하다.

### 스웨덴의 상점들

「메트로」를 집어들고서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에 가서, 우선 나에게 배당된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 한 잔을 마신다. 나는 이 연구소에 초빙연구원(guest researcher)의 지위로 와 있지만, 다른 모든 연구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컴퓨터가 있고 필요한 문헌자료들은 복사할 수 있다. 스웨덴의 책값은 매우 비싸서 1권에 보통 300크로나(약 54,000원)나 된다.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책을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한다. 도서관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각 포코핀별로 곳곳마다 도서관들이 있고 언세라도 책을 빌릴 수 있다. 우리 부부도 포코핀 도서관 카드를 만들었다. 이 도서관은 내 아내가 자주 이용하는 편으로, 주로 아이들의 교육용 영어 책을 주로 빌리다가 본다. 스웨덴 도서관에는 한국 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스톡홀름대학 도서관에 한국책 파트가 있지만 그리 많은 편이 아닐뿐더러 출판연도가 오래된 책이 대부분이다.

스톡홀름 중앙역 근처에 아카데미 라는 대형서점이 있고, 바로 그 옆 함스가

판(Hamngatan)에 '스웨덴 인스티튜트' (Swedish Institute)라는 서점도 있다. 이 서점들에 책 구경하러 여러 번 가 보았지만 워낙 비싼 책값에 놀라지 않은 때가 없다. '아카데미' 서점 옆에 또 큰 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서점에서는 책 세일을 자주 한다. 지금까지 책 세일 안 한 날이 손꼽을 정도로 매우 적다. 그리고 그 서점 앞에는 스웨덴의 악명 높은 '시스템볼락' (systembolag)이라는 큰 상점이 있다.

'시스템볼락'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술상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슈퍼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슈퍼에서는 맥주는 팔 수 있는데, 맥주도 3.5%가 넘는 것은 팔 수가 없다. 시스템볼락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져 몇 년 안가 이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시스템볼락은 우선 가까운 슈퍼에서 살 수 없으니 거리상의 불편함이 있고 더 문제인 것은 술상점을 정부가 독점해서 그 가격을 너무나 높게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을 자주 여행 갔다 오는 한국 교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 가격이 독일보다 40%에서 어떤 것은 2배 정도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 정부로서도 이 수익사업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상점 체인은 '이까' (ICA), '콘썸' (KONSUM), '비보' (VIVO)이다. 이 상점들은 시내 곳곳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인데도 상점마다 가격이 약간씩 틀리고, 각 상점마다 싸게 파는 물건들이 있어서 어느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상점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상점들은 자주 세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심할 때 슈퍼 세일 광고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다. 가구전문점으로는 '이께아' (IKEA)가 있는데, 위에서 말한 '함느가판'에서 1시간 1대씩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린다. 침대나 이불, 카페트 등은 물론이고 어린이 장난감도 시중보다 싸 가격에 살 수 있다.

## 연구소 생활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에서는 청소부, 우편물 및 기타 운영일반 책임자와 컴퓨터관리자가 각각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이런 구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커피도 총무 담당자가 커다란 커피기계에 끓여 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가 있다. 연구소 건물과 내부 시설물도 레스토랑처럼 멋스럽고 연구소 앞에 클라라 호수(Klara sjo)가 흐르고 있어 커피 맛이 절로 난다.

프린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일 프린터가 고장이 나면 담당자에게 말하면 금방 고쳐주니까 연구원들에게는 참으로 편하다고 할 수 있다. 우편물도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담당자가 있어서 연구소 우편물통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간다. 우선 한국 신문부터 검색하고 전자우편에 온 편지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스웨덴의 기업과 정부기관 및 민간 기관은 대부분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 정보를 얻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http://www.niwl.se>인데 여기에는 연구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도서관 소장 책들을 검색할 수 있다. 한국에서 스웨덴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스웨덴 노동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한국 대학도서관에 외국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확실히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는 세 곳에 나뉘어져 있다. 스톡홀름의 쏘나(Solna)와 쿡스브로플란(Kungsbropplan), 그리고 중북부의 대학도시인 우메오(Umea)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나는 쿡스브로플란에 머물고 있는데, 쏘나가 본부적인 곳이지만 쏘나도서관에 있는 책도 여기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쿡스브로플란에는 스웨덴 모델의 창시자인 루돌프 메이드네르(Rudolf Meidner)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결정제와 노동의 인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오케 산드베리(ke Sandberg)가 있고, 공공부문의 전문가인 카스텐 폰 오페르(Casten von Otter)가 바로 옆방에 있다. 연구소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연구원들끼리 전자우편을 주고받고 연구소에서 공고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편리하다. 세미나나 기타 중요 전달사항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고받는다. 한국의 컴퓨터통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CUG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구소는 모두 랜(lan)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도 연구소에서 전자우편 주소를 받았다. 내 전자우편 주소는 soobumin@niwl.se이다. 연구소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도 교수나 학생은 대부분 학교에서 전자우편주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나는 연구소에서 '노동시장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노동시장 분과' 내부 모임이나 연구소 전체 세미나 등이 있을 때 자주 참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의 미카엘 슈만(Michael Schmann)이 '테일러리즘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보다는 유명한 미카엘 슈만을 보았다는 점과 토론자로

10여명이나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노동조합에서는 볼보사의 셔브데(Sk vde) 노조지부장, 스카니아(Scania) 노조지부장이 사용자조직에서는 볼보 경영진의 몇 사람과 사용자연맹(SAF)에서 참가하였다. 이 세미나도 위에서 말한 오게 산드베리가 주관한 것이다. 이런 세미나는 한 달에 2~3번 정도 있는 셈이다.

## 스톡홀름의 이모저모

5월 1일에는 생각했던 대로 노동절(may day)행사가 있었는데,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이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생산직노총(LO) 앞 공원에서 있었다. 이색적인 것은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에 시가 행진이 있었는데 각 행진대열 앞에 관현악단이 '인터내셔널가' (세계노동자의 노래)를 연주하면서 앞서 나가는 것이었다. 행사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해서, 스톡홀름 시장이 사회를 보고 루돌프 메이드네르(Rudolf Meidner)와 수상인 요란 페르손(Goran Persson)이 연설을 하고 중간에 간단한 인형극과 노래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2천여 명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진지해서 한국학교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처럼 조용했고 차분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날씨가 좋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좋은 날을 즐기고 있었다. 이 날 오게 산드베리(Ake Sandberg)가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연구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것도 연구소 자체 통신 프로그램으로 전자우편으로 친절하게도 집 주소와 만날 시간을 알려주었다.

이런 연구소 행사 중 6월 3일에 있을 보트 피크닉이 가장 재미있을 것이다. 보트여행은 여기 시청 앞에서 보트를 타고 지금 왕의 가족이 사는 드로트닝홀름(Drottningholm)을 왕복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입헌군주국으로 지금도 국왕이 있어서 국립기관에는 왕립(kungliga)이라는 말이 붙는다. 왕립도서관, 왕립공과대학 등이 그 예이다. 스톡홀름에 감라 스탄(Gamla stan)에는 전에 왕의 가족이 살던 왕궁이 있다. 감라 스탄의 의미는 '옛날 도시' 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왕궁과 의회 건물 등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다.

스톡홀름은 수 천개의 섬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섬의 도시 또는 물의 도시(city on water)라고 불리어진다. 스톡홀름 구경은 보통 여기 감라 스탄이 중심이다. 감라 스탄에는 의회가 있고, 올렌스(Ahlens)와 엔코(NK) 같은 대형백화점이 있으며 여기에서 스톡홀름 유람선이 출발한다. 울고덴(Djulgården)에는

스칸센(Skanssen)이라는 야생동물원과 민속촌이 있고, 티볼리(Tivoli)라는 어린이 놀이 동산이 있으며, 옛날 바이킹 배를 전시해 놓은 바사박물관(Vasa museum)이 있는데, 여기도 감라 스탄에서 버스를 타거나 배를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다.

### 스톡홀름의 일상생활

스웨덴의 물가는 한국에 비해서 평균 잡아서 3배 정도는 비싸다. 특히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너무나 2배 가까이 떨어져서 더 비싸게 느껴진다. 연구소에서는 점심시간이 보통 12-1시 정도인데 연구원들은 먹을 것을 싸와서 연구소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나 연구소 앞 식당에서 사 먹는다. 스웨덴의 점심 값은 저녁식사 가격에 비해 2배정도 싼 편인데도 60크라운(약 11,000원)이나 된다. 나는 한국식품점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아침은 식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는 편이다.

점심 시간 후에는 책을 읽거나 논문을 복사하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시간에 집에 있는 아내도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기본적인 가사노동인 식사준비와 세탁 외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을 다기스(Dagis, 탁아소 또는 놀이방을 가리킴)에 보내고 토요일에는 한글학교에 보내야 한다. 아침,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세탁실이 아래층에 있어서 세탁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사용한다. 물론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세탁기를 구입하면 된다. 스웨덴에서는 수도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물을 끓여서 마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물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 놀이방에는 12개월이 지난 아이면 보낼 수 있으며, 각 꼬핀에서 운영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시립놀이방이 있어서, 아이들 놀이방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꼬핀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사설놀이방도 있다. 우리 아이들은 꼬핀에서 운영하는 영어놀이방에 보내고 있다. 영어놀이방이란 놀이방 교사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영어를 1시간 정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놀이방을 말한다. 놀이방의 대부분은 스웨덴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외국연구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 놀이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스웨덴어 놀이방도 이 놀이방에 개설되어 있다. 주로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 출신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은 12명인

데 놀이방 교사는 3명이다. 영어 놀이방이라 그런지 교사 중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다기스 가격은 꼬핀마다 다르지만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은 다기스 가격이 작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다기스 가격이 크다. 다음의 <표 1>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꼬핀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격표이다. 놀이방에서는 매일 다른 점심식사와 간식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리 비싼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물론 시정부에서 다기스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초등학교부터는 모든 것이 무료이다.

<표 1> 놀이방 가격표 : 만1-5세

(단위 : 크로나)

월 소득	아이의 수에 따른 월 놀이방 가격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0 - 8,999	450	303	225	130	148	126
9,000 - 11,999	900	607	450	360	297	252
12,000 - 13,999	1,200	810	600	480	396	336
14,000 - 16,999	1,400	945	700	560	462	392
17,000 - 19,999	1,600	1,080	800	640	528	448
20,000 - 22,999	1,800	1,215	900	720	594	504
23,000 - 25,999	2,000	1,350	1,000	800	660	560
26,000 - 29,999	2,200	1,485	1,100	880	726	616
30,000 -	2,400	1,620	1,200	960	792	672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스웨덴의 놀이방 가격은 월 소득과 아이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놀이방에 보내는 아이 수가 많을수록 그 가격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소득 수준에 따른 놀이방 가격의 차이를 보면, 아이 2명을 가진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0 - 8,999크로나인 가정은 1명당 303크로나로 2명이면 606크로나를 내야 되는데 비해, 월 소득이 30,000크로나가 넘는 가정은 1명당 1,620크로나로 2명이면 3,240크라운을 내야 되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5배 이상 더 비싼 셈이다. 이런 것이 다른 사회복지수당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액수를 꼬핀이나 정부에 내게 되는 것이다.

### 스웨덴 사람들의 일, 교육, 휴식

다기스는 보통 만5살까지 다니고 만6살에는 유치원에 만7살에는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유치원과정은 보통 초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비슷한 교육연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중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할 것인지 대학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좀더 진로를 일찍 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명성이 복지국가라 평생교육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의 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한번은 생산직노총(LO)에 작업조직부서에 있는 한 여성노조간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는 전에 요테보리(Goteborg)에 있는 볼보 자동차 투쉬란다(Torslanda)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동안 대학교육을 마쳐서 지금은 LO의 작업조직부서에서 작업조직 발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스웨덴 노동조합은 수십년 동안 노동자의 인간화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왔으며 최근에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방정부노조(SKTF)의 한 간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교육을 몇 시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그는 조합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소에서 연구실을 스웨덴 동료(이름은 이바르임) 1명과 같이 쓰고 있는데, 동료라고 부르기에 나이 너무 많다. 지금 54살이라고 한다. 여기 연구원들이 나이는 양극화되어 있어서 50대인 사람들이 가장 많고 최근에 들어온 30대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게 산드베리가 하는 말로는 중간에 신입연구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바르는 아이가 없다. 스웨덴은 개신교 국가라 다른 유럽국가처럼 부활절 휴일이 긴 편인데, 이바르는 이런 때면 남쪽 지방에 있는 자신의 여름별장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스웨덴사람은 여름별장(Sommar stuga)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년에 유급휴가는 5주(35일)이다. 물론 토요일도 일요일처럼 휴일이다. 여기에 카톨릭과 관련된 연휴가 많아서, 외국인인 보기에는 휴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느낄 정도이다. 스웨덴에 최근에 회사일로 온 가족은 스웨덴 달력에는 왜 이렇게 빨간 날이 많은지 놀랐다고 한다. 게다가 더욱 놀랄 일은 1년 휴가 중 4주 정도를 여름휴가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스카니아(Scania)노조를<sup>1)</sup> 방문할 때,



함께 갔었던 볼보자동차와 에스코에프(SKF)조합간부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들었다. 볼보와 SKF는 모두 요테보리에 있는데, 내가 요테보리에 언제 방문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더니 7월에는 공장이 한 달 동안 휴업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7월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즐긴다.

그런데 스톡홀름 주립병원인 카롤린스카(Karolinska) 노조간부의 말로는, 스웨덴에서도 간호사 부족 현상이 있어서 경영진 측에서 7월의 4주 휴가는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그 노조간부는 자신은 이번 여름에 4주 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내 연구소 동료도 여름휴가 동안 스웨덴 남쪽과 이태리 등을 여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매우 부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 동안 밀린 책들을 읽고 스톡홀름에 있는 여러 박물관과 좋은 산수(山水)를 만끽할 생각이다. 여기에서 알게 된 한국교포들도 대부분 여름에는 여행을 가는 데 주로 노르웨이나 핀란드로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 퇴근해서 집에 갈 때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한다. 스톡홀름은 버스표와 지하철표를 모두 같은 표를 사용한다. 1번 탈 때 버스요금이 14크라운(약 2500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버스에서 내린 후 1시간 이내에는 버스든 지하철이든 무료로 탈 수 있다. 버스표도 한달 표, 3달 표, 95크라운짜리 표, 하루 표 등 다양하다. 나는 한달 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400크라운(약 72,000원)이다. 이 표로는 지하철과 버스를 하루에 100번도 탈 수 있고, 스톡홀름 근교까지는 무료로 기차를 탈 수 있으며 감라 스탄에서 울고덴섬까지 운행하는 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교통요금은 학생과 노인에게는 할인이 되어서 약 40%정도가 싼 편이다.

스웨덴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자체가 말을 조용하게 하는 편이고 노동조합의 파업도 많은 편이 아니라 평온하게 보인다.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90%가까이 되는 데도 교통도 혼잡한 편이 아니고, 숲과 공원, 호수가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어 한가로운 사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스웨덴 노사관계에서도 한창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잘

1) 스웨덴은 직장위원을 포르트로엔데발드(fortroendevald)라고 하는데 1974년의 「직장위원의 지위에 관한 법」에 따라 각 기업에는 노조사무실과 노조전임자가 있다. 물론 사무실 운영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한다. 내가 방문한 스카니아 쇠더탈리에(Sodertalje) 트럭공장의 경우 금속노조(Metall), 사무직노조(SIF), 전문직노조(CF), 감독교노조(Ledarna)의 4개 노조가 있다. 금속노조의 전임자는 12명(조합원 3,000명), 사무직노조 전임자는 9명(조합원 1,500명)이었다. 조합비는 금속노조가 임금총액의 1.7%, 사무직노조가 1.0%이다.

조직되어 있고 중앙노조 차원의 교섭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경우는 교섭내용의 분권화가 예상보다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스웨덴도 한국처럼 외채부담이 커져서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은 바도 있다.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이 스웨덴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민주적 노사관계 체계와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명성이 점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체계가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적 체계가 50년 이상 사회제도로 확립되어 왔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에 깊이 침투해있기 때문이다. 앞날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